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중재 효과*

Moderating Effects of Daily Life Activity Experi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Violent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이 미 리**
Lee, Mee R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daily life activity experiences to violent behaviors and their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violent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A sample of 134 secon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carried electronic watches for one week and provided reports on their objective activity situation and subjective states when signalled at random times.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iolent behaviors. Daily activity experiences were correlated with violent behaviors and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violent behaviors.

More time spent in socializing and passive leisur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during schoolwork and active leisure were correlated with higher violent behaviors. Lower motivational states during schoolwork were correlated with higher violent behaviors. Lower cognition of importance and attention states during schoolwork and higher cognition of importance and attention states during active leisure and maintenance activities were correlated with higher violent behaviors.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 during active leisure, motivation and attention states during schoolwork on the relationship of stress with violent behaviors were found among girls only.

Key Words : 초기청소년(early adolescence), 폭력행동(violent behaviors), 일상생활활동
(daily life activity)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27일

* 이 논문은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41-D00367)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E-mail : MeeryL@chollian.net

I. 문제의 제기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외현적, 내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발달 특징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지나친 입시 경쟁 상황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부가된 입시스트레스를 누적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이 시기의 스트레스는 폭력행동을 비롯한 부적응 행동의 주 관련 요인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재엽, 최선희, 1998; 백혜명, 1998; 윤진, 곽금주, 1991; 이경희, 김광웅, 1996; 이미리, 1995; 이미리, 정현숙, 1997; Compas, Orosan, & Grant, 1993). 청소년기 폭력행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부적응 행동의 한 형태로서(노성호, 1994; 정기숙, 1993),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일종의 대처행동으로서 설명되는데(김재엽, 최선희, 1998; 심우철, 1999; Dodge, 1990) 최근 들어 그 빈도나 정도가 이전보다 심각해져서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문제행동이나 대처행동으로 고려되기보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재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김준호, 1997; 김준호, 이성식, 1996; 도기봉, 1999; 양돈규, 임영식, 1998; 이미리, 어주경, 1999; 임영식, 1998; 최소영, 1999).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폭력행동의 관련 요인을 크게 환경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 학교, 친구집단, 사회구조, 대중매체 등이 있으며, 심리적 변인으로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자극추구동기, 성격, 자아존중감, 물질추구적인 가

치관, 우울증 등이 제시되고 있다(강영자, 이재연, 1996; 곽금주, 문은영, 1993; 김정옥, 장덕희, 1999;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오치선, 조아미, 1996; 이승훈, 1996; 전귀연, 1998; Zuckerman, 1979).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나 이를 기초로 폭력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폭력행동 관련 환경적 변인들은 주로 가족, 학교,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제도적 모순 등으로 그 접근방법이 거시적이어서 개인의 폭력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으며, 성격, 자아개념,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안정된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폭력행동을 중재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폭력행동 관련 환경적 변인들의 제도적이거나 구조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행동 변화에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적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폭력행동 관련 심리적 변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특성보다는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전환에 따라 변화가 용이한 특성을 밝혀보고자 일상생활활동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활동 경험(daily life activity experiences)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어떠한 심리상태로 보내는 지로 측정될 수 있다(Larson, 1989).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활동의 외현적 특성은 다양한 일상

생활활동에 대한 하루 시간의 사용 유형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내면적 특성은 각 일상생활 활동 중 경험되는 심리상태로 측정될 수 있다. 청소년기 일상생활 경험과 적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일상생활 경험은 개인의 적응 및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상생활 경험과 적응 및 부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상생활 경험이 부적응의 선행변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이 일상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입장에 대한 옳고 그름은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인간과 맥락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해 볼 때(Bronfenbrenner, 1979) 어느 입장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합치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폭력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으므로 일상생활경험이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청소년기 일상생활 경험과 적응 및 부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경험,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는 낯선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 TV를 오래 보는 등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경험, 여가 활동보다는 공부를 할 때의 경험이 우울증 등 정서적 부적응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으며(이미리, 1995, 1996, 2000; Hendry & Patrick, 1977; Larson & Kleiber, 1993; Lee & Larson, 2000), 성인의 감독이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상 활동, 무리한 아르바이트 활동 등

이 청소년의 비행·폭력 등 반사회적 부적응 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1; Bachman & Schulenberg, 1993; Galambos & Maggs, 1991).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을 개선하거나(이하중, 1997), 스포츠를 비롯한 여가활동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표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쟁적인 삶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행동 유발 가능성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김병준, 1999; 전병관, 김홍석, 1999;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 psychology, 1992; Larson & Kleiber, 1993).

먼저, 일상생활맥락 경험이 부적응 행동의 유발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리(1996)는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 표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이기도 하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부정적 정서 상태가 수반되고 자유로움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학업 활동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미리(2000)는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폭력 행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TV를 보는 일상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achman과 Schulenberg(1993)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과후 아르바이트 활동을 오랜 시간 동안 할 경우에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여가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성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짐을 발견하였다. Hendry와 Patrick(1977)은 15세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V를 오래 보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신경증적인 부적응 증세를 더 많이 보였다고 하였다.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2001)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과후 성인의 감독 없이 학업활동이 아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반사회적인 공격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기 특정 일상생활경험이 부적응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행동 유발 가능성을 줄이거나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그리고 정상인 뿐 만 아니라 부적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Larson과 Kleiber(1993)는 청소년기 일상생활경험 중에서 즐거움,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여가활동, 예를 들어 운동, 친구들과 어울림, 음악, 미술 등의 취미활동, 컴퓨터 등의 미디어 사용 활동을 통해서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다른 경쟁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행동의 유발과 지속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하중(1997)은 학교폭력 비행학생으로 선정된 남녀 중학생 각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9개월간의 교내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화단 가꾸기, 등산로 오물수거 등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폭력행동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우울증,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증세나 이로 인한 부적응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rown & Siegel, 1988; Lawton, Moss, & Fulcomer, 1987; Lewinson & Libet, 1971).

이상의 결과들은 일상생활경험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청소년기 폭력행동에 대한 중재가 가능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기대 효과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에 제시된 연구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활동 경험과 폭력행동 수준과의 관계 및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스트레스 중재 효과의 양상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초기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폭력행동 수준과 관계가 있는가?
2. 초기 청소년의 일상생활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3. 초기 청소년의 일상생활활동 중 경험하는 정서, 동기, 인지상태는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강남구, 강동구, 광

진구, 관악구에 소재한 4개 중학교와 경기도에 소재한 1개 중학교에서 편의표집된 남, 녀 중학교 2학년생으로 남학생 68명, 여학생 66명,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N=134)

변인	집단	남(N=68)	여(N=66)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1) 부모연령			
<u>어머니</u>			
	30대	16(23.6)	23(34.8)
	40대	43(63.1)	39(59.0)
	50대	0	2(3.0)
<u>아버지</u>			
	30대	4(5.9)	8(12.0)
	40대	52(76.5)	52(78.9)
	50대	3(4.5)	4(6.0)
2) 부모교육수준			
<u>어머니</u>			
	중졸이하	14(21.9)	10(16.4)
	고졸	37(57.8)	39(63.9)
	전문대졸 이상	13(20.3)	12(19.7)
<u>아버지</u>			
	중졸이하	13(20.3)	7(11.3)
	고졸	34(53.1)	36(58.1)
	전문대졸 이상	17(26.6)	19(30.6)
3) 부모직업수준			
<u>어머니</u>			
	무직	24(36.9)	23(36.5)
	단순 노동직	2(3.1)	6(9.5)
	기술직	8(12.3)	6(9.5)
	판매·서비스직	4(6.2)	7(11.1)
	자영업	20(30.8)	14(22.2)
	사무직	7(10.8)	7(11.1)
<u>아버지</u>			
	무직	1(1.6)	0
	단순노동직	5(7.9)	6(9.7)
	기술직	11(17.5)	14(22.6)
	판매·서비스직	1(1.6)	0
	자영업	28(44.4)	15(24.2)
	사무직	16(25.4)	25(40.3)
	경영직	0	2(3.2)
	전문직	1(1.6)	0
4) 부모결혼 상태			
	두분 함께 사심	57(83.8)	57(86.4)
	이혼, 별거 또는 사별	11(16.2)	9(13.6)

주: 백분율을 합산해서 100%가 안 되는 경우는 무응답 때문임.

총 134명이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남, 녀 학생 모두 부모의 평균연령이 40대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61%가 고졸, 20%가 전문대졸 이상이고, 아버지의 56%가 고졸, 29%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36%가 전업주부이며,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과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버지는 자영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85%이상의 연구대상자들이 부모 초혼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2. 연구도구

측정도구로는 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심리적, 사회적 배경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와 청소년 스트레스척도, 폭력행동척도, 그리고 일상생활활동 경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경험 표집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1) 배경변인 측정 질문지

부모연령, 교육수준, 직업종류, 그리고 부모 결혼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폭력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심리, 사회적 변인인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 학교성적, 부모폭력관찰 경험빈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2) 스트레스

청소년기에 자주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총 44문항으로 각 문항에는 일

상적스트레스가 기술되어 있으며, 한 학기동안 경험한 스트레스의 정도를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학교(혹은 학원)를 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학교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내가 아끼는 소지품을 잃어버렸다’ 등이다. 산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4점에서 2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스트레스척도의 타당도는 구인타당도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공통분 분석 모델의 주축분해법을 적용하고, 사각회전법으로 축회전을 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생활습관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부모님의 압력 스트레스, 가정분위기 스트레스, 그리고 외모 스트레스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산출한 내적합치도지수 Cronbach α 는 하위요인별로 생활습관 스트레스 .76, 공부 스트레스 .72, 친구관계 스트레스 .65, 부모님 압력 스트레스 .85, 가정분위기 스트레스 .87, 외모 스트레스 .61, 그리고 전체는 .93이었다.

3) 폭력행동

청소년의 폭력행동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미리(2000)의 폭력행동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청소년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다양한 폭력가해행동을 기술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화가 나서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았다’, ‘다른 사람을 말로 헐박하였다’, ‘다른 사람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등이다. 한 학기동안 각 문항에 제시된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물었으며 Likert식 6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산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4점에서 144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가해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공통분 분석 모델의 주축분해법을 적용하고, 사각회전을 실시한 결과 언어 및 심리적 폭력, 대물 폭력, 그리고 신체 폭력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8%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산출된 Cronbach α 는 하위요인별로 언어 및 심리적 폭력은 .85, 대물폭력은 .80, 신체폭력은 .73, 그리고 전체는 .89이었다.

4) 일상생활활동 경험

일상생활활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험표집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 ESM)을 사용하였다. 경험표집방법은 일상생활 환경에서 일정기간 동안(대개 일주일) 하루에 수차례씩 무작위로 소리 신호를 주어 신호가 있을 때마다 질문에 반복적으로 답하게 하는 방법이다(Larson, 1989). 즉 하루 중 깨어있는 동안의 시간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표집된 시간에 일어나는 일상생활경험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실험실이나 질문지를 실시하는 특정 공간과 같은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일상생활 환경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에 측정하게 되므로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높고 회상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deVries, 1992).

일상생활활동 경험은 외현적 생활양식과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내면적 심리상태의 기록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외현적 생활양식의 측정은 깨어있는 시간동안 다양한 일상생활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에 대한 양적 측정을 의미한다. 내면적 심리상태의 측정은 외현적 생활에 수반되는 심

리상태에 대한 질적 측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서, 동기, 인지의 측면에서 측정하게 된다(Hillgard, 1980). 정서상태는 긍정적,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말하며, 동기상태는 그 활동을 얼마나 하고 싶어하는지의 정도, 그리고 인지상태는 활동에 대한 중요성인지 정도 및 그 활동에 임했을 때의 주의집중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의 내용과 그 활동 중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하루에 7회씩 일주일간 총 49회의 소리신호를 주고 소리신호가 들릴 때마다 다음 내용의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첫째,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하루 시간사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개방식 질문과 둘째, 각 활동 중 경험하는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상태, 동기 수준, 인지 수준을 묻는 평정척도 문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서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보기로 제시된 12개의 정서상태에 대해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12개의 정서상태는 Izard(1991)가 제시한 기본적인 정서이며 김경희(1996, 1997)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과 아동에게서도 일관된 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Izard(1991)가 범주화한 12개 정서상태의 내용은 흥미, 기쁨, 놀람, 슬픔, 우울, 분노, 혐오, 공포,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사랑이다. 12개 문항 중 흥미, 기쁨, 사랑은 긍정적 정서, 나머지 9문항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긍정적 정서 문항들에 대한 내적합치도지수인 Cronbach α 는 .72, 부정적 정서 문항들에 대해서는 .80으로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동기 수준을 묻는 질문은 “지금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입니까?”이며, 인지수준

을 묻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째, 중요성인지 수준을 묻는 질문으로 “지금 하는 일은 자신에게 중요합니까”, 둘째, 주의집중 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하는 일에 주의집중이 잘 됩니까”로 이상의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는 5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세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주말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반응과 목, 금요일의 반응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상관계수는 .69 ~ .78로 산출되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경험표집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활동 경험을 측정하는 질문지 49장을 묶은 질문지첩과 하루 깨어있는 시간 동안 평균 3시간 간격을 두고 분(minute)은 무작위로 하여 매일 7회씩 일주일간 총 49회의 소리신호를 주기 위해서 미리 입력한 전자손목시계를 나누어주고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를 지니고 다니면서 소리신호가 울릴 때마다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지 한 장씩을 답하게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수는 총 4256부로 회수율 65%이었다.

경험표집방법자료의 분석 절차를 제시하면 첫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내용분석하여 일상생활활동의 범주를 크게 6개로 분류하였다. 활동의 범주는 a)학교일과중 공부 b)방과후 공부 c)타인과의 교제 d)소극적 여가 e)적극적 여가 f)생활유지 및 이동으로 분류되었다. 각 범주별 하위활동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둘째, 응답한 전체 소리신호 수에 대한 각 활동 범주에 해당하는 소리신호 빈도의 백분율을 산출하여 일상생활활동별 시간사용 유형 변인으로 사용

〈표 2〉 초기 청소년의 일상생활활동 범주

활동 범주	활 동 내 용
학교일과 중 공부	수업, 자율학습,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중 공부, 시험
방과후 공부	과외수업, 학원수업, 개별공부, 숙제, 과외나 학원수업 중 시험, 교육방송 시청
타인과의 교제	전화하기, 대화하기, 핸드폰과 컴퓨터로 메시지 확인과 보내기, 친구와 어울려 돌아다니기, 친구와 놀기, 친구와 싸우기
소극적 여가	교과서 이외의 책읽기, 음악듣기, TV보기, 담배피기, 술마시기, 생각하기, 길거리나 사람 구경하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 낙서하기, 즐기기
적극적 여가	운동하기, 자전거 타기, 공원이나 거리 산책하기, 운동경기·영화·콘서트 등 관람하기, 쇼핑하기, 춤추기, 악기연주하기, 노래하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고치기, 글쓰기, 취미강좌 수강, 봉사활동, 종교활동, 요리하기, 컴퓨터 게임, 동아리 활동
생활유지 및 이동	휴식, 잠자기, 씻기, 식사하기, 병원가기, 약먹기, 화장실가기, 심부름하기, 청소하기, 몸단장하기, 기다리기, 줄서기, 차타기, 다음활동 준비하기(책가방짜기, 책 챙기기, 이부자리 펴기 등), 아르바이트

하였다. 셋째, 각 활동 범주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된 정서상태, 동기 수준, 인지 수준 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의 각 활동범주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폭력행동 점수를 종속변인, 스트레스와 일상생활활동별 시간사용유형과 심리상태를 포함하는 일상생활활동변인, 그리고 스트레스와 일상생활활동변인의 상호작용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회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회귀분석시 심

리, 사회적 배경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스트레스, 일상생활활동 경험, 그리고 폭력행동 수준에서 성차를 보여 남, 여학생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문제의 분석은 남, 녀 따로 실행하였다(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1; 박미석, 이정우, 김명자 외, 2001; 이미리, 2000; Larson & Verma,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내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Ⅲ. 연구결과

1.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남, 여별 스트레스 점수와 폭력행동 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표3>에 의하면 남, 여학생 모두 스트레스 수준은 폭력행동 수준과 의미 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압력관련 스트레스와 외모 스트레스가 그들의 폭력행동 수준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었고, 여학생의 폭력행동 수준은 생활습관 스트레스, 부모님의 압력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분위기 스트레스와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었다.

<표 3> 남, 여학생별 스트레스와 폭력행동 수준과의 관계

집단 스트레스	남학생	여학생	전체
생활습관	.27	.56***	.41***
공부	.19	.18	.18
친구관계	.06	-.09	-.03
부모님 압력	.47***	.43**	.43***
가정분위기	.29	.39**	.35***
외모	.49***	.02	.22*
전체	.34**	.57***	.43***

* p<.05, ** p<.01, *** p<.001

2.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활동에 보낸 시간의 중재효과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인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활동 경험 변인의 중재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배경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심리·사회적 배경변인과 스트레스 및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심리·사회적 배경변인 중 어떠한 변인도 스트레스 수준 및 폭력행동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성적에 따라 스트레스의 수준($F=6.06, P<.01$)과 폭력행동수준이($F=4.57, P<.001$) 달랐다. 따라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분석 시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의 효과를 통제한 후 위계적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스트레스, 일상활동에 보낸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와 시간의 상호작용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폭력행동수준에 대한 위계적회귀분석을 남, 녀 따로 실행하였다.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에 보낸 시간들은 상호상관이 높으므로 회귀 분석은 활동범주

별로 실시하였다. 각 활동범주별로 실시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활동시간,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변인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성적, 스트레스, 활동시간, 그리고 스트레스와 활동시간의 상호작용변인이었다.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호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각 활동범주별 활동 시간과의 관계는 스트레스와 소극적 여가활동 시간과의 관계($r=.27, p<.05$)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여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스트레스와 의미있는 관계($r=.43, p<.05$)를 보였으나 스트레스와 활동시간, 그리고 학교성적과 활동시간은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활동범주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각 활동범주별로 실행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 녀 학생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스트레스는 폭력행동수준을 가장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았다. 일상활동에 대한 시간도 폭력행동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6가지 유형의 활동 중에서 타인과의 교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타인과의 교제 활동 뿐 아니라 소극적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았다.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활동시간 사용유형이 중재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스트레스×활동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는데 남, 녀

<표 4> 남, 여학생별 폭력행동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 일상활동에 보낸 시간, 스트레스×일상활동에 대한 시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집단	독립변인	일상활동범주		학교 일과 중 공부		방과후 공부		타인과의 교제		소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생활유지 및 이동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남학생	모델1 스트레스	.31**	.11**	.34**	.11**	.28*	.11*	.39**	.11**	.35**	.11**	.37**	.11**		
	모델2 활동시간	-.20	.03	-.09	.00	.30*	.07*	.20	.04	.00	.00	.18	.03		
	모델3 스트레스 ×활동시간	-.27	.07	.06	.00	-.07	.00	.05	.00	.12	.01	-.04	.00		
	전체 R ²		.22**		.12*		.19**		.15*		.13*		.15*		
	모델1 학교성적	-.04	.06	-.03	.06	-.03	.06	-.08	.06	-.02	.06	-.01	.06		
여학생	모델2 스트레스	.58***	.27***	.61***	.27***	.56***	.27***	.58***	.27***	.63**	.27***	.61***	.27***		
	모델3 활동시간	-.16	.03	-.16	.02	.36*	.06*	.28*	.07**	-.01	.00	-.16	.03		
	모델4 스트레스 ×활동시간	-.04	.00	.08	.00	-.19	.02	.00	.00	.06	.00	-.08	.00		
	전체 R ²		.35***		.35***		.40***		.40***		.33***		.36***		

* p<.05, ** p<.01, *** p<.001

주 : β 값은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모델에서 산출된 값임.

ΔR^2 는 R²증가분을 의미함

학생 모두에게서 의미있는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독립변인들의 폭력행동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남학생의 경우 활동범주에 따라 12~22%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33~40% 이었다.

3.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활동별 심리상태의 중재효과

스트레스와 폭력행동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활동 중 심리상태의 중재효과 분석은 정서상태, 동기수준, 인지수준 순으로 실행하였다.

1) 일상활동 중 정서상태의 중재효과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활동 중 정서상태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회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앞에서 제시한 대로 남, 녀 학생 모두 스트레스는 폭력행동수준을 가장 의

〈표 5〉 남, 여학생별 폭력행동점수에 대한 스트레스, 일상활동 중의 정서(긍정적,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정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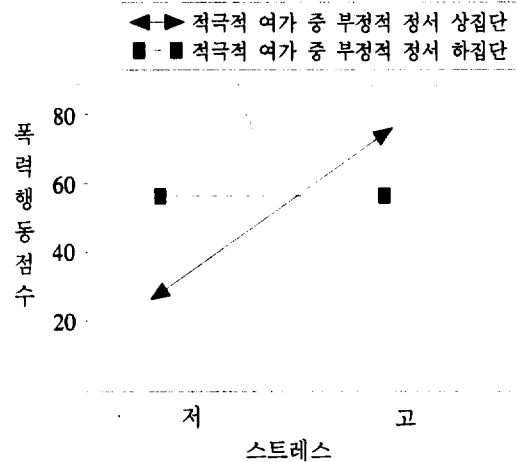
집단	일상활동 종류 독립 변인	학교일과 중 공부		방과후 공부		타인과의 교제		소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생활유지 및 이동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남 학생	모델1 스트레스	.30**	.11**	.39**	.16**	.33*	.13*	.33**	.13**	.27*	.12**	.33**	.11**
	모델2 긍정적 정서	-.11	.01	-.05	.00	-.05	.00	.21	.04	-.26*	.06*	.00	.00
	모델3 스트레스× 긍정적 정서	-.02	.00	-.01	.00	.02	.00	-.00	.00	.03	.00	.03	.00
	전체 R ²		.12**		.16*		.13**		.17*		.19*		.11*
	모델1 스트레스	.40**	.11**	.41*	.16**	.08	.13*	.38**	.13**	.37*	.12**	.38*	.11**
모델2 부정적 정서	-.22	.04	-.23	.05	.26	.03	-.03	.00	-.13	.02	-.18	.03	
모델3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05	.00	-.14	.01	-.31	.06	-.03	.00	-.06	.00	-.04	.00	
전체 R ²		.16*		.23**		.22*		.13*		.14*		.14*	
여 학생	모델1 학교성적	-.04	.04	-.00	.07*	.03	.09*	-.03	.06	-.01	.05	.02	.07*
	모델2 스트레스	.49***	.24***	.57***	.31***	.57***	.26***	.59***	.27***	.49***	.23***	.54***	.26***
	모델3 긍정적 정서	-.14	.02	-.16	.02	-.05	.00	.01	.00	.07	.00	-.14	.03
	모델4 스트레스× 긍정적 정서	-.21	.04	.10	.01	-.14	.02	-.18	.03	.21	.04	-.12	.01
	전체 R ²		.34***		.42***		.37***		.36***		.32**		.36***
모델1 학교성적	-.01	.04	-.03	.07*	.05	.09*	-.04	.06	.02	.05	-.04	.07*	
모델2 스트레스	.67**	.24***	.72***	.31***	.63***	.26***	.64***	.27***	.58***	.23***	.69***	.26***	
모델3 부정적 정서	-.35**	.09**	-.17	.01	-.16	.01	-.16	.02	-.15	.00	-.27	.06	
모델4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11	.01	.15	.02	.11	.01	-.16	.03	.30*	.07*	-.13	.02	
전체 R ²		.38***		.41***		.37***		.37***		.35***		.40***	

* p<.05, ** p<.01, *** p<.001

주: β 값은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모델에서 산출된 값임.

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며, 일상생활활동 중에 경험한 정서상태의 폭력행동점수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 중 경험한 긍정적인 정서가 폭력행동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하였는데, β 값이 $-.26$ 으로 적극적 여가 중에 긍정적 정서경험을 많이 할 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일과 공부 중 부정적 정서 경험이 폭력행동 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하였으며 흥미롭게도 β 값이 $-.35$ 로 학교일과공부 중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을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들의 폭력행동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남학생의 경우 활동범주에 따라 11~23% 정도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32~42% 정도였다.

일상생활활동 중 경험하는 정서상태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는 여학생의 적극적 여가활동 중 부정적 정서경험에서 나타났다. 중재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스트레스 점수와 부정적 정서의 점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각각 상, 하집단으로 분류하고, 스트레스와 폭력행동 점수의 관계를 도표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적극적 여가활동 중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많이 하는 여학생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 수록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반면, 부정적 정서경험을 적게 하는 여학생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해도 폭력행동수준이 의미있게 높아지지 않았다. 참고로 부정적 정서 수준의 상, 하집단별로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 상집단에서는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상관관계가 $.63(p<.01)$ 으로 의미있는 반면, 하집단에서는 $.23$ 으로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그림 1> 여학생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점수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 여가활동 중 부정적 정서 경험의 중재효과

2) 일상활동 중 동기수준의 중재효과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동기유발 수준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학교일과 중 공부시간이나 생활유지 및 이동활동 중에 동기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중 경험하는 동기유발수준이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기수준을 포함한 독립변인들의 폭력행동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활동범주에 따라 12~1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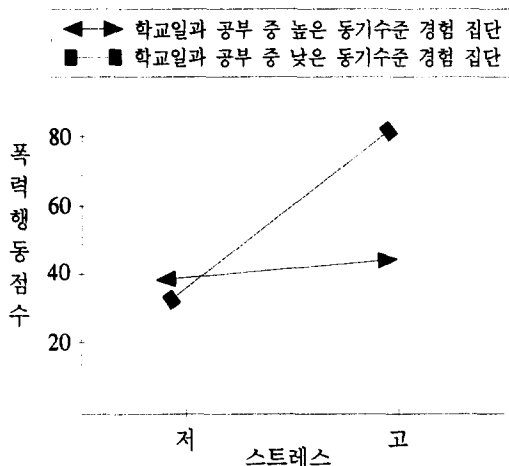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폭력행동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30~45%로 남학생과 달리 학교일과중 공부시간에 높은 동기수준을 경험할 수록 폭력행동수

<표 6> 남, 여학생별 폭력행동점수에 대한 스트레스, 동기수준, 스트레스×동기수준의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일상활동종류	학교 일과 중 공부		방과후 공부		타인과의 교체		소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생활유지 및 이동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남학생	모델1 스트레스	.34*	.11**	.44**	.16**	.44*	.13*	.33**	.13**	.38**	.12**	.32**	.11**
	모델2 동기수준	.28*	.08*	-.05	.01	-.10	.01	.11	.01	.12	.01	.33**	.10**
	모델3 스트레스× 동기수준	.03	.00	-.14	.02	-.16	.02	-.14	.02	-.05	.00	.07	.01
	전체 R ²	.12**		.16*		.13**		.17*		.19*		.11*	
	모델1 학교성적	-.07	.04	-.06	.07*	.04	.09*	-.02	.06	.01	.05	.02	.07
여학생	모델2 스트레스	.34**	.24***	.54***	.31***	.56***	.26***	.63***	.27***	.50***	.23	.57***	.26***
	모델3 동기수준	-.35**	.09**	-.20	.02	.11	.01	-.00	.00	.01	.00	-.06	.00
	모델4 스트레스× 동기수준	-.31**	.08**	-.21	.04	-.09	.01	-.22	.05	-.14	.02	.14	.02
	전체 R ²	.45***		.45***		.36***		.37***		.30**		.34***	

* p<.05, ** p<.01, *** p<.001

주: β 값은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모델에서 산출된 값임.



<그림 2> 여학생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학교일과 공부 중 동기수준의 중재효과

준이 낮았다. 또한 이러한 동기수준은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를 중재하였는데 분석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학교일과 공부 중 높은 동기수준을 경험하는 여학생들에게서는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 의미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낮은 동기수준을 경험하는 여학생들에게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관계가 발견되었다. 참고로 학교일과 공부 중 높은 동기수준을 경험하는 여학생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의미가 없었으나($r=.06, p=.802$), 동기수준이 낮은 여학생 집단에게서는 스트레스와 폭력행

동 간에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r=.72$, $p<.001$).

3) 일상생활활동 중 중요성 인지수준의 중재효과

일상생활활동중의 인지상태를 나타내는 두 변인중 하나인 활동의 중요성 인지정도가 청소년의 폭력행동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방과후 공부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지할수록 폭력행동수

준은 낮았으며, 반면에 적극적 여가활동과 생활유지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지할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도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가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학교 일과 중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부적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인들의 폭력행동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남학생의 경우 활동범주에 따라 13~30% 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29~40% 이었다.

<표 7> 남, 여학생별 폭력행동점수에 대한 스트레스, 중요성인지, 스트레스×중요성인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집단	일상활동종류 독립 변인	학교 일과 중 공부		방과후 공부		타인과의 교제		소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생활유지 및 이동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남 학 생	모델1 스트레스	.35**	.11**	.40**	.16**	.38*	.13*	.36**	.13**	.41**	.12**	.32**	.11**
	모델2 중요성인지	.14	.02	-.32**	.11**	.13	.01	.04	.00	.24*	.06*	.26*	.06*
	모델3 스트레스× 중요성인지	-.01	.00	-.18	.03	.07	.00	.03	.00	.06	.00	.03	.00
	전체 R ²	.13*		.30***		.14		.13*		.18*		.18**	
여 학 생	모델1 학교성적	.05	.04	-.02	.07*	.05	.09*	-.02	.06	.02	.05	.02	.07*
	모델2 스트레스	.46***	.24***	.59***	.31***	.58***	.26***	.58***	.27***	.52***	.23***	.53***	.26***
	모델3 중요성인지	-.26*	.06*	-.11	.01	.02	.00	.01	.00	.06	.00	-.16	.03
	모델4 스트레스× 중요성인지	.01	.00	-.01	.00	-.09	.01	-.02	.00	.06	.00	-.03	.00
전체 R ²	.34***		.40***		.36***		.32***		.29**		.35***		

* p<.05, ** p<.01, ***p<.001

주: β 값은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모델에서 산출된 값임.

4) 일상활동 중 주의집중 수준의 중재효과
 끝으로 일상생활활동 중 인지상태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변인인 주의집중수준의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 그리고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생활유지

및 이동활동 중에 주의집중이 잘된다고 보고한 남학생들이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독립변인들의 남학생의 폭력행동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활동범주에 따라 13~23% 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방과후 공부활동 중에 주의집중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았으며, 학교 일과 중 공부시간에 경험하는 주의집중수준은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를

<표 8> 남, 여학생별 폭력행동점수에 대한 스트레스, 주의집중 수준, 스트레스×주의집중 수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집단	일상활동종류 독립 변인	학교 일과 중 공부		방과후 공부		타인과의 교제		소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생활유지 및 이동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남 학 생	모델1 스트레스	.37**	.11**	.40**	.16**	.39*	.13*	.36**	.13**	.38**	.12**	.36**	.11**
	모델2 주의집중	.15	.02	-.18	.02	.09	.01	.13	.02	.13	.02	.26*	.07*
	모델3 스트레스× 주의집중	.01	.00	-.22	.05	.08	.01	-.06	.00	-.03	.00	.01	.00
	전체 R ²		.13*		.23**		.14		.15*		.14*		.18**
여 학 생	모델1 학교성적	.03	.04	-.04	.07*	.04	.09*	-.00	.06	.02	.05	.03	.07*
	모델2 스트레스	.38**	.24***	.50***	.31***	.58***	.26***	.56***	.27***	.57***	.23***	.54***	.26***
	모델3 주의집중	-.18	.04	-.26*	.06*	.08	.01	-.04	.00	-.06	.00	.04	.00
	모델4 스트레스× 주의집중	-.23*	.04*	-.10	.01	.01	.00	-.16	.02	.19	.03	.13	.02
전체 R ²		.36***		.45***		.36***		.35***		.3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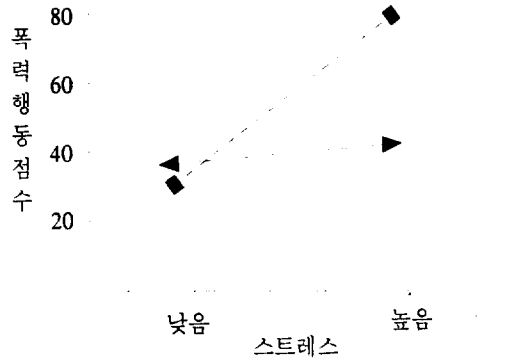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β 값은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모델에서 산출된 값임.

중재하였다. 독립변인들의 여학생의 폭력행동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활동범주에 따라 31~45% 이었다.

여학생의 경우에 나타난 공부시간 중 주의 집중 수준의 중재효과를 살펴보면 학교일과 중 공부시간에 주의집중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와 폭력행동 수준과의 관계는 .36($p < .05$)으로 산출되었으며, 주의집중 수준이 낮은 여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와 폭력행동 수준과의 관계는 .66($p < .001$)으로 산출되었다. 즉, 공부시간에 주의집중 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 수준간의 관계가 주의집중 수준이 낮은 여학생들에게서보다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중재효과의 분석결과는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다.

◀ ▶ 학교일과 중 공부에 대해 주의집중수준이 높은 집단
 ■ ■ 학교일과 중 공부에 대해 주의집중수준이 낮은 집단



<그림 3> 여학생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학교일과 공부 중 주의집중 수준의 중재효과

IV. 논의 및 결론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의 삶에서 발생하므로 일상생활 경험은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과 동시에 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 등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행동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문제행동의 유발과 예방 및 해결에 관련된 일상생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영희, 김은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 2000; 이미리, 2000; Seidman & Aber, 1999).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일상생활 활동에 초점을 두어 일상생활활동의 외현적 생활양식과 내면적 심리상태가 청소년기 폭력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인지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일상생활활동 경험이 청소년기 문

제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스트레스의 폭력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문제 순으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폭력행동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남, 녀 학생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초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활동들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은 폭력행동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남, 녀 학생 모두 친구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별 하는 일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

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이러한 활동 뿐 아니라 T.V보기, 음악듣기, 빈둥거리기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폭력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 비행이 주로 여가시간에 일어나며 비행은 여가의 한 표현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관성이 있다(김미숙, 2000; 이영길, 1990; Agrilar, 1987). 적극적이고 건전한 여가활동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비행수준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활동, 즉 친구들과 어울려 집밖에서 놀거나, 오락실에 가거나, 친구집에 놀러가는 등과 같은 여가활동, 특히 성인의 감독 없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빈도가 높은 활동을 많이 하는 일상생활경험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관성이 있다(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1; 이승훈, 1996; Galambos & Maggs, 1991; Larson & Verma, 1999).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여 비행이 발생되도록 한다고 지적한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관성을 보인다(이동원, 1997).

셋째, 적극적 여가활동 중에 수반되는 정서적 경험은 초기청소년들의 폭력행동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적극적 여가활동 중에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많이 할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적극적 여가활동 중에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적게 할수록 스트레스가 폭력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나 문화적 취미 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서 폭력행동의 원인이 되는 자극추

구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폭력행동의 유발 가능성을 중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서진교, 박장근, 서정윤, 1999; Robertson, 1994). 따라서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의 유발을 중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의 적극적 여가활동 중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신체적 도전의 기회를 주어서 몰두할 수 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 여가활동(예를 들어 운동, 예술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오은미, 박경옥, 2000; 박미석, 이정우, 김명자 외, 2001), 제도적으로 이러한 적극적 여가활동의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실행이 필요하겠다(한준상, 1997).

넷째, 여학생의 경우 학교일과 중 공부시간에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을수록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관계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교일과 중 공부시간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긍정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보다 청소년기 수업 중 부정적 정서경험이 우울증 수준과 관계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미리(1995)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업 중에 부정적 정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울증과 폭력행동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적응 증세이며 이들은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다(김정원, 오경자, 1993). 수업시간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외현화된 폭력행동으로 반영되는 대신 내면화된 우울증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학교일과 공부시간 중의 부정적 정서경험과 폭력행동 수준과의 부적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관련지어 추후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학교일과 중 공부시간에 수반되는 동기수준이 초기청소년의 폭력행동수준과 의미있는 관련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의 경우 학교일과 중 공부시간에 경험하는 동기수준과 폭력행동 수준간에 정적관계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추후연구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Bandura, Barbaranell, Caprara, & Pastorelli, 1996).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선행연구결과와 일관성이 있게 학교일과 공부시간 중에 높은 동기수준을 경험할 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 행동으로 폭력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중재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폭력행동 및 비행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이미리, 2000; Bandura, Barbaranell, Caprara, & Pastorelli, 1996).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활동에 대해 지루함과 낮은 동기수준을 경험하고 있다(오치선, 권일남, 1999; 원형중, 1992; 이미리, 1996, 2000; 이훈구 외, 2000).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업활동 중에 높은 성취동기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업활동에 몰두하게 하는 노력은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주 부적응 문제인 폭력행동에 대한 중재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안학교의 시도나 일반학교에서도 주입식, 암기식 수업이 아닌 학생중심의 조별토론 및 발표, 사이버 수업, EBS 방송수업을 이용한 수업의 시도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조한혜정, 2000).

여섯째, 남, 녀 학생 모두 공부를 하는 동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다시 말해 학업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활동 중의 동기수준과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는 남학생은 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지라 하더라도 학업활동이 아닌 여가활동과 생활유지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행동수준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활유지활동 중에 주의집중이 잘된다고 반응한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남학생에 비해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여가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클수록 그리고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낮을수록 비행수준이 높았다는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199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우리의 교육제도 속에서 청소년기에 공부보다 여가나 생활유지 활동 등 다른 활동 중에 인지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더욱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폭력행동과 같은 외현적인 부적응 행동의 유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학교일과 중 학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주의집중이 잘될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았으며, 스트레스가 폭력행동수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어지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중재효과를 보였다. 종합하면, 학업활동에 대한 높은 주의집중수준은 폭력행동수준의 저하, 여가나 생활유지활동에 대한 높은 주의집중수준 및 중요성인지 등은 폭력행동 증가와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초기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보다 학업활동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의집중이 잘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청소년기 초기에 소극적인 여가활동이나 친구와 어울려 다니며 시간을 때우는 식의 여가활동 시간이 적을수록, 적극적 여가활동 중에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할수록, 그리고 학업활동 중에 동기수준이 높고 중요성인지도와 주의집중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낮았다. 이상과 같이 일상생활활동의 외현적, 내면적 경험은 폭력행동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폭력행동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를 기초로 해 볼 때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적 결과로 나타나는 폭력행동의 중재를 위해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조절을 통한 접근은 여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개인당 하루에 7회씩 일주일 간 총 49회를 반복측정 하는 ESM방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측정할 수 있었으나 질문지의 회수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영자, 이재연(1996).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307-326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경희(1996). 한국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14.
- 김경희(1997). 한국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43-56.
- 김미숙(2000). 청소년 비행의 대안적 여가스포츠 연구방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8, 15-23.
- 김미해, 옥경희, 천희영(2001). 초기청소년기의 방과 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전가정학회지*, 39(6), 93-108
- 김병준(1999).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재미 및 스트레스 요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0(2), 193-210.
-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69.
- 김재엽, 최선희 (1998). 청소년 스트레스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9, 181-204.
- 김정옥, 장덕희(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학회지*, 4(2), 153-183.
- 김정원, 오경자(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26-141.
- 김준호 (1997). 한국의 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청소년폭력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청소년 개발원)*, 9-29.
- 김준호, 이성식 (1996). 계층에 따른 학업 성적과 비행과의 관계: 긴장이론과 사회통제 이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 97-120.
- 노성호 (1994). 청소년 학교생활과 비행. *수사연구*, 4, 25-29.
- 도기봉(1999).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2, 247-266.
- 박미석,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김경아, 우미란 (2001).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VI): 청소년의 여가문

- 화 실태 및 여가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4), 61-78.
-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3-64.
- 백혜명(1998). 폭력에 관한 이해: 학교폭력(집단화된 선배폭력)에 관한 한국문화적 해석. 중앙대사회개발논총, 18, 309-332.
- 서진교, 박장근, 서정윤(1999).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국가통계자료이용. 한국체육학회지, 38(2), 145-157.
-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양돈규, 임영식 (1998). 청소년 비행의 최근 동향과 원인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1, 109-132.
- 이승훈(1995). 청소년의 여가 생활양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스트레스 사회학회지, 4, 161-182.
- 이승훈(1996). 청소년의 여가동반자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한국스트레스 사회학회지, 6, 181-190.
- 이영길(1990). 권태감 및 여가권태감과 청소년 약물남용과의 관계. 여가레크레이션연구, 7, 76-90.
- 오은미, 박경옥(2000). 청소년의 여가환경 이용과 희망 여가공간의 의치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97-315.
- 오치선, 권일남(1999). 청소년의 방과후 생활상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리서치 아카데미논총, 2(62), 21-42.
- 오치선, 조아미(1996). 기획논문: 전자영상매체가 청소년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1, 1-18.
- 원형중(1990). 중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실태와 여가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여가레크레이션 연구, 7, 91-119.
- 윤진, 박금주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2), 53-94.
- 이경희, 김광웅(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127-139.
- 이동원(1997).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형사정책연구, 8(3), 233-271.
- 이미리(1995).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복합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89-98.
- 이미리(1996). 청소년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활동 경험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2), 23-36.
- 이미리(2000). 일상생활의 어떠한 경험이 초기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9-p06. 서울: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식회사.
- 이미리, 어주경(1999).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의 유형에 따른 관련 맥락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0(2), 119-142.
- 이미리, 정현숙(1997). 청소년의 입시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44-154.
- 이승훈(1995). 청소년의 여가생활양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4, 161-182.
- 이승훈(1996). 청소년의 여가동반자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6, 181-191.
- 이하중(1997). 청소년 적십자 자원봉사활동 program 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비행학생 생활지도 연구. 교직원과 현장교육 연구보고서(생활지도영역).
- 이훈구 외(2000). 심리학자의 교실이야기. 서울: 범문사.
-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전귀연 (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전병관, 김홍석(1999). 스포츠심리학도 수련과 자아효능감, 스트레스 및 자아실현의 인과관계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38(4), 280-285.
- 정기숙(1993).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 병리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9.
-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

- 회.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최소영(1999).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4), 870-880.
- 한준상(1997). *동송동의 아이들 : 청소년의 파격문화*. 연세대학교출판부.
- Aguilar, T. E.(1987, May). A leisure perspectives of delinqu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5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Halifax, Nova Scotia Canada.
- Bachman, J. G. & Schulenberg, J. (1993). How part-time work intensity relates to drug use, problem behavior, time use, and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eniors : Are these consequences or mere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20-235.
- Bandura, A., Barbaranell, C., Caprara, G. V., & Pastorelli, C.(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s.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J. & Siegel, J.(1988). Exercise as a buffer of life stress : A prospective study of adolescent health. *Health Psychology*, 7, 341-353.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 implication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deVries, M. W.(1992).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 : Investigating mental disorders in their natural setting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Vries, M. W. & Delespaul, P.A. E. G. (1992). Variability of schizophrenia symptoms. In M. W. deVries, (Ed.),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pp. 97-10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1990).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Y : Cambridge.
- Galambos, N. L.& Maggs, J. (1991). Children in selfcare : figures facts, and fiction. In J. V. Lerner & N. L. Galambos(Eds.), *Employed mothers and their children*(pp. 131-157). NY : Garland.
- Hendry, L. B. & Patrick, H. (1977). Adolescents and televi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4), 325-336.
- Hilgard, E.(1980). The trilogy of mind : Cognition, affectation, and con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 16, 107-117.
-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 Psychology.(1992).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benefits. *The Physician and Sportsmedicine*, 20(10), 179-182.
- Izard, C.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Y : Prenum Press.
- Larson, R.(1989). Beeping children and adolescents : A method of studying time use and dail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11-530.
- Larson, R. & Kleiber, D. (1993). Daily experiences of adolescents. In P. H. Tolan & B. J. Cohler(Eds.), *Handbook of clinical research and practice with adolescents*(pp. 125-145). NY : John Wiley & Sons, Inc.
- Larson, R. W., & Verma, S.(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736.
- Lawton, M. P., Moss, M., & Fulcomer, M. (1987). Objective and subjective uses of time by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4(3), 171-188.
- Lee, M.(1995). *Cultural differences in the daily manifesta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Ph.D. Dissertation, School of Human Resources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0.
- Lewinsohn, P. M. & Libet, J.(1971). pleasant events, activity schedules, and depress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9(3), 291-295.
- Robertson, B, J. (1994). Leisure in the lives of male adolescents who engage in delinquent activity for

excitement.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2(4), 29-46.

- Seidman, E. & Aber, J. L.(1999) The risk and protective functions of perceived family and peer microsystems among urban adolescent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211-237
-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Y : Wiley.